

영 수석 총리 “트러스 잘못 바로잡을 것”

찰스 3세 국왕 알현 후 임명
헨트 재무장관 등 각료 유임
“경제안정·신뢰가 핵심 의제”



리시 수석 영국 신임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의 리시 수석 신임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리즈 트러스 전임 총리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트러스 충격’ 대처를 위해 긴급히 투입됐던 제리미 헨트 재무장관을 비롯해 외무, 국방 등 핵심 각료들을 유임해 안정을 꾀했다.

수석 총리는 집권 보수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날인 25일(현지시간) 오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알현한 자리에서 제57대 총리로 임명된 뒤 관례대로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했다.

수석 총리는 “성장 추구는 숭고한 목표이지만 리즈 트러스 총리는 몇 가지 잘못을 했고 나는 이를 바로 잡으라고 총리로 뽑혔다”며 “즉시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고 코로나19 여파도 남아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

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수석 총리는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지금 빚을 갚기 어렵다고 해서 다음 세대로 떠넘기진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업적을 치켜세우는 동시에 2019년 총선 승리가 존슨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보수당 전체의 몫임을 시사했다.

당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부여한 임무를 실행하겠다는 무상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강화, 교육 개선, 치안 강화, 국정통제, 환경 보호, 국방강화, 균형 발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기회를 활용한 경제 발전을 들었다.

수석 총리는 어깨가 무거운 자리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겁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역사상 최초의 비백인이자 210년 만에 가장 젊은 총리이며 지난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즉위한 찰스 3세가 임명한 첫 총리다.

수석 총리는 제리미 헨트 재무장관과 제임스 클리버리 외무장관, 벤 윌리스 국방장관 등을 유임하는 등 내각 인선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해 세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이 불안정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안정과 신뢰를 정부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코로나19 때 실직을 막기 위한 유급휴직 지원제도를 펼치는 등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한계는 있겠지만 현재 어려움에도 그때와 똑같은 연민을 가



수단 하르툼 시민들 반군부 시위 25일(현지시간)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시민들이 쿠데타 1주년을 맞아 반군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반군부 구호를 외치며 민정 이양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수단에서는 지속해서 반군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美와 갈등 사우디, 중국과는 에너지 협력 합의

양국 에너지 회담 “공급망 협력”

최근 석유 감산 결정 이후 미국과 갈등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홍콩 사우디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둘라지즈 빈 살만 왕자와 중국 장쑤화 국가에너지국장은 지난 21일 화상 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사우디 정부가 밝혔다.

양측은 회담에서 사우디에 중국 제조업체들을 위한 ‘지역 허브’ 구축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아래 협력과 공동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양측은 또한 복잡하고 변동성 있는 국제 환경 탓에 다양한 불확실성을 견디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이고 신뢰할 만한 석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사우디는 계속 중국의 가장 신뢰할만한 파트너이자 원유의

공급자였다고 밝혔다.

SCMP는 “회담 회담 후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 재조정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며 “일부 관측통들은 사우디가 중국과 에너지 회담을 한 것은 사우디에는 다른 파트너도 있음을 미국에 알리는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앞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지난 5일 성명에서 11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최대 감산 폭이다.

미국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을 심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확보를 도울 것이라며 감산을 만류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미국은 이번 감산 결정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 실적을 늘림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고하겠다는 의향까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 해외 피란민에 “올겨울 귀국 말라” 당부

기반시설 훼손 감당 힘들어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력망 등 기반시설이 크게 훼손된 우크라이나가 해외 피란민들에게 이번 겨울 동안에는 귀국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리나 베레슈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국영TV에 출연해 “피란민에게 내년 봄까지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전력망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겨울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해외 피란민이 귀국한다면 “상황이 악화되지만 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당분간 해외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해외로 몸을 피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수가 7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대패한 데 이어 남부 전선에서도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이달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관련 기반시설을 겨냥한 대대적 폭격을 진행 중이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 기준으로 전체 발전소의 3분의 1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난방과 전기, 가스, 물 등의 공급이 끊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러 함대 저주파 음향 탐

흑해 돌고래 5만마리 폐죽음”

러시아 군함이 사용하는 수중 음파 탐지기가 흑해에 서식하는 돌고래 100마리 가량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과 과학계는 올해 2월 개전 이후 아직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흑해 해안에서 집단 폐사한 돌고래와 알락돌고래 95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간이 목격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죽은 돌고래는 수만 마리에 달할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주장이다. 과학자 이반 루세프는 “흑해에서 죽은 돌고래는 약 5만 마리로 추정된다”며 전쟁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전에 분쇄되지 않은 흑해 해안선 44km를 따라 돌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는 일은 1년에 몇 번 없었다고 설명했다.

루세프는 부검 결과 이들 돌고래 사체에서는 그물에 걸렸거나 지느러미가 잘린 흔적 등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부 항만 도시 오데사 지역 검찰총장 세르게이 코스텐코는 “전쟁 연구에 따르면 돌고래 집단 폐사의 원인은 러시아 흑해 함대가 사용하는 음파 탐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연설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가운데)이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가톨릭 평신도 공동체인 ‘산 에지디오 공동체’의 국제 콘퍼런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Cry for peace) 마지막 날에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영 정상, ‘러 침공·중국발 도전’ 대응 공감

바이든, 수석 총리에 축하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리시 수석 신임 영국 총리와 전화를 하고 취임을 축하했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국간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인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수석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 침략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한편 중국에 의해 제기된

도전들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대한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벨파스트/성금요일 협정으로 얻은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공통의 약속과 북아일랜드 협약에 대해 유럽연합(EU)과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벨파스트 협정’(성금요일 협정)은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이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북아일랜드를 영유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권을 지닌 아일랜드공화국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